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강경림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백신에게 듣는다 <서촌세번째>

무진장스님 초청 송년법회

- 주제 : 오늘을 사는 지혜
- 일시 : 불기2549(2005)년 12월 17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무진장스님 약력

- ▶ 전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 ▶ 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자선 바자회 및 후원자의 밤

- 일 시 : 2005년 12월 17일(토)
- 시 간 : 자선 바자회 - 13시, 후원자의 밤 - 17시
- 장 소 : 경기불교문화원



12월 사찰환경 답사

< 수덕사, 고건축박물관, 추사고택, 천장암 >

- 일 시 : 2005년 12월 11일(일)
- 출발지 : 오전 7시 30분 -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3만원
(중식비/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12월 호



부모님을 생각하는 송년

권중서/본원이사/조계종 포교사



유난히도 마음은 바빠 허둥거리고 몸은 쓸데없이 수고롭기만 한 12월 한 달, 마지막 남은 달력을 쳐다보며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본다.

어떻게 하면 일 년 중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알차게 보낼 것인가 궁리도 해 보지만 그 동안 내가 11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 왔는가? 후회가 앞선다. 12월 달력에 적힌 빼곡한 일정들, 이런 저런 송년 모임 등 더욱 바쁘기만 한 남은 한 달,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을 생각해 보는 일이 더없이 값진 일일 것이다.

운서주평 스님의 죽창수필 중에서 “대효인(大孝人) 석가께서도 누굽에 부모의 은혜를 갚으시고 그 인을 쌓아서 정각을 이루셨으며, 범망경에는 계가 비록 만행이 있으나, 그 가운데 효도가 근본이다.” 하고 말하셨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때에 서산대사 청허당 휴정스님이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글을 옮겨 실어 부모님을 생각하는 송년이 되었으면 한다.

“소자는 묘향산 심원동 상남대의 초암(草庵)에 병들어 누워 향과 폐백을 갖추고 사람을 보내 부모님의 쌍무덤 밑에 삼가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구천(九天)은 멀며 구원(九原: 황천)은 아득 하온데 아버지는 어디 계시며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누구에게나 부모가 없을까마는 저희 부모의 은혜는 다른 사람과 아주 다르며 누구에게 생사가 없을까마는 저희 부모의 죽음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찌하여 세 아들이 머리를 땅을 닦고 소자가 이를 가는 해에 인자한 어머니는 갑자기 난새(鸞)를 타시고 엄격한 아버지는 이어 기마(驥馬)를 타셨나이까. 바람은 옛 나무에 슬프고 달은 빈 문을 조상하였나이다. 소자가 뜰에서 절한들 누가 시를 가르치고 문에서 절한들 누가 짜던 베를 꿰었나이까. 아버지를 생각하오니 창자가 이미 끊어졌고 어머니를 생각하오니 눈물이 피로 변하나이다. 천하와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슬픔이 이보다 더하나이까. 아아, 슬프고 애달파라.

세월은 흘러 어느새 백발이 성성하였나이다. 이미 두형이 죽고 한 누이마저 갔으니 하늘을 불렀으나 하늘은 높아 부르짖을 길이 없고, 땅을 두드렸으나 땅은 두터워 호소할 길이 없나이다. 오늘에 이르러 은혜(恩愛)를 끊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라 하지만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유교의 법입니다. 화서(禾黍)를 탄식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면 구름이 슬프고 송추(松楸)를 바라보면서 의관(衣冠)을 생각하면 또 바람소리가 슬픔니다. 아아, 슬프고 애달파라.

생각하오면 소자가 처음 났을 때 무릎 밑에 두고 손바닥 위에서 길렀으니 아버지의 은덕은 하늘과 같고,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으니 어머니의 덕은 땅과 같나이다. 또 생각하오면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아침에 이 소자를 ‘아가’ 라고 세 번 부르고 한 소리로 통곡하셨으니 아아 슬프고 애달프오며, 또 생각하오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밤에는 소자를 안은 채 베개를 높이하고 이불속에서 고요히 가셨으니 아아, 슬프고 애달픔니다. 푸른 등불은 벽에 걸렸으나 어머니의 길쌈하는 모습 다시 볼 수 없고, 고향 산의 연기와 달에서는 아버지의 시 짓고 술 마시는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사오니 말소리와 모습이 아득하여 천추에 영원한 이별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저승과 이승은 하나의 이치요,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의 기운이라 천리 밖에서 한번 통곡하고, 만 번 절하며 한 번 드리웁니다. 아득한 가운데에서도 알음이 있삽거든 가없이 여겨 밝게 살피소서.” 청허 휴정스님의 애절한 부모 생각하는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살아온 동안의 불효를 참회해 본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모님의 은혜 10가지 중 마지막 구경연민은(究竟憐愍恩)은 부모가 목숨이 끊길 때까지 자식걱정 해주시는 은혜이다.

평생 자식을 화두로 들고 자나 깨나 자식위해 살아오신 부모님께 일 년을 보내며 우리는 몇 번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는가?

삭풍(朔風)은 건널 수 있으나 자식의 무관심은 살을 도려내는 부모의 아픔이여라.

이제 남은 한 달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잡아드려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게 함이 송년을 보내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경기 불교**

부처님 말씀(6)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는 소물이뿐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 법구경 19 -

Though he recites much the Sacred Texts, but is negligent and does not practise according to the Dhamma, like a cowherd who counts the cattle of others, he has no share in the benefits of the life of a bhikkhu.

- The Dhammapadam 19 -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금강경의 핵심(사구계)

虎岩 迦葉스님



그래서 다음 사구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색(물질)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보통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는 육근, 안이비설신의, 즉 눈귀코혀몸뚱이 색성향미촉법을 대상으로 마음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쉽게 말해 눈으로 물질인 색을 보는데 여여하게 아무런 분별없이 바라보지 못하고 대상에 마음이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킵니다. 머무른다는 말은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연인을 볼 때와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좋다고 집착하고 밋다고 집착하여 대상에 좋고 싫음의 분별을 덧붙이고는 그 좋고 싫은 대상에 마음이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킵니다.

좋은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미운 대상에 대해서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상은 늘 허망하기 때문에 잠시 인연따라 좋고 싫게 나타날 뿐이지 고정되게 좋고 싫은 대상하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색성향미촉법의 대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머무름 없는 행, 함이 없는 행이야말로 모든 수행자들의 실천 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집착, 방하착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겠다고, 부처를 찾아 나서는 이들이 많지만 부처라는 것 또한 대상으로 정해 놓고 찾아 나서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근으로 부처를 만나고자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형상의 부처를 보려고 하거나, 귀로서 부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샅된 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지 못합니다. 눈 귀코혀몸뚱 육근으로 촉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다음 사구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샅된 도를 행함이니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 어때요?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이란 다 허망하며 다만 잠시 인연따라 생하고 멸할 뿐인 겁니다.

모두가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이며 번개와 같은 것이라고 잘 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이처럼 금강경의 사구계는 연기, 공, 무집착, 무아라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아십니까? 그렇게 허무한 것이니까 세상 살 필요도 없고, 다 필요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 하고, 서러워하고, 욕심부리며 살던

바로 그 괴로움의 대상인 이 현상 세계가 모두 공하여 허망하고 꿈같고, 환영같고, 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걸리지 말고 여여하게 시원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현상세계는 다 허망하여 물거품 같은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 몸이 있다는 것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몸은 누구냐? 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공하고 허망하다는데 그럼 허망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바탕에 나를 이끌고 가는, 이 허망한 현상계를 이끌고 가는 본래자리, 진면목, 자성불, 불성, 주인공, 한마음 이라 불리는 바로 이 본래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여래를 볼 것이란 말은, 이 현상세계 모든 상들을 허망하고 꿈과 같으며 환영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고 바로 관하라는 말이고, 그렇게 현상계의 생멸법을 바로 관했을 때 여래를 본다, 즉 부처가 되고 깨닫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의 실천법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인 것이지요. 세상 다 허무한 것이니까 다 필요없고, 마음을 일으킬 것도 없다가 아니라 마땅히 마음을 일으키고 살라는 말입니다. 마음 일으키지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왜요?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허무한 것이고 공한 것이니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허무하고 공하다는 현상계를 잘 관할 수 있어야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실천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잘 관(觀)하며 살 수 있어야 세상이 다 공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를 통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실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여래를 보며(見性) 부처(成佛)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출처:목탁소리> 정기 불교

가마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검로보석

대표 : 이재익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4-1(선일프라자 107호)

TEL : 031)255-9484 H.P : 017-312-9484



약으로 알아 이 음식을 먹습니다

선재스님



불교에서는 식사 전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생각하는 계송과 이 음식에 깃든 모든 이의 공덕을 찬탄하고 이 음식을 먹는 이유를 되새기며 식사를 합니다.

그 중 오관게라 하여 한글로 풀어 말하면 “온갖 정성 두루 쌓인 이 음식을 부족한 덕행으로 감히 받나. 탐심을 여의어서 허물을 막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이 불도를 이루고자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식사 전 기도가 타종교의 전유물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에서는 2600년 전부터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모이신 경기 불교문화원 불자님들도 식사 전에 이렇게 꼭 기도합니다.

불교에서의 음식문화는 어디에서부터 기인 되었는가. 그것은 생명존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유미힐 경전에 보면 유마힐이 병이 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병문안을 가도록 하였습니다. ‘왜 병이 났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 유마힐 거사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중생은 유정, 무정을 포함한 느낌이 있는 모든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만이 존중되어야 할 생명체가 아니라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못 생명을 돌로 보기 때문에 물, 공기, 토양 등 환경이 오염되고 오염된 음식을 먹으니 아프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중생과 내가 하나인 것이 생명존중이고 이러한 연유로 채식위주의 식단을 만든 것이 선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증일아함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시작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먹으니까 생명이 이어지고 종족 번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경상도 음식은 맵고 짜니까 성질이 급하거나 화통하고, 충청도 음식은 심심하니까 느리고, 전라도 음식은 재료가 풍부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예술적인 기질로 표출됩니다. 이러하듯 각 지방의 음식에 따라서 그 지방 고유의 특질이 나타납니다. 또한 개인에게도 먹는 음식에 따라서 성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음식에 기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 동적인 음식과 정적인 음식으로 구분하여 동적인 것은 밖으로 치닫는 마음이 나는 음식으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육류와 술입니다. 채식 중에서도 오신채는 날로 먹으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동적인 음식이고 요즈음 만들어지고 있는 가공식품은 거의 다 동적인 음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음식이 정적인 음식으로 몸에 기가 잘 흐르도록 하는 면역력이 있는 음식인 것입니다.

불교 경전 사분율에서는 모든 음식이 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 즉 약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아침에는 죽(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점심에는 밥(거친 음식)을 먹고 저녁에는 과일(영양 식)즙을 먹되 인간의 생체 리듬에 맞추어서 해가 떠서 지기 전까지만 식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침은 뇌의 활동 시간이기 때문에 맵고 짜거나 비린 음식을 피하고 맑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또한 낮에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취하고 저녁은 신장, 심장, 간장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적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을 줄여서 간장, 심장, 신장의 활동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밥 먹고 하여 위장에 많은 부담을 주어서 무리가 따릅니다.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건강해 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과 정신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잘 관찰하여 식습관을 바꾸어야 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하여 맛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평가를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깃든 모든 기운이 자신의 몸에 고루 퍼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은 적당한 양을 먹되 되도록 적게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먹을 음식을 남겨서 버리면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그 만큼의 복이 감소해짐을 느낀다면 가정에서도 사찰에서의 바루 공양처럼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식사를 모두 마친 후 “크신 은혜 넘치는 공양을 받으니 몸과 마음 청정 하여라 바라건데 모든 중생 고통을 벗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부처님 수행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성품을 만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경기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 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다도 교육생 모집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기초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기초반/중급반)
- 지도강사 - 홍인숙



중국 동북지방 문화답사(IV)

경기불교문화원장/ 우양 금당 진철희



4) 연길, 용정, 도문

심양의 서탑가에 있는 한식집에서 고향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야간열차를 타기 위해 심양 역으로 출발하였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수평선에서 멀어지니, 주위에는 아름다운 네온 불빛으로 심양거리를 내비치고 있었다. 중국의 대도시의 열차역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만원이라 잘못 한눈을 팔다가는 앞에 가고 있는 일행들을 놓치기 십상이다. 아무리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다 하여도, 여행에 대해 물어보면 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만 알고 있지, 그 이상은 모른다는 대답뿐이다.

일행 중 한명이 중도에서 장사꾼과 물건을 흥정하다가 길을 잃어버려 물어 물어 우리 일행한테 합류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난 뒤였다.

다행히 기차가 연착이 되어 다 같이 출발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이국땅에서 이산여행자가 될 뻔 하였다.

중국의 야간열차는 인도와 비슷하므로, 현지 적응을 위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비행기보다는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차의 이용은 침대칸을 상증하에 6명이 한 가족이 되어 그동안 금금했던 여행문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담소하다보면, 여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길에서의 아침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답게 유창한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과 만남으로 시작된다.

조선족 2세라는 젊은 남자 가이드는 오랫동안 가이드 경험으로 몸 구석구석 구령이가 들어 앉아 있어서, 본인에게 이익 되는 관광 쇼펍등에는 눈에 빛이 나고, 나머지는 공산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주지 않아, 일행들에게 면박을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듯하다.

누가 이 젊은 청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연길은 백두산으로 가는 관문이자, 조선자치주의 행정, 문화의 중심도시이다.

거리의 간판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간판은 한글 명기가 의무화되어 있어 심양보다 더 한국적이다.

한국인들의 동북 삼성의 관광산업에 힘을 얻어 여타도시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연길시는, 이제는 한국의 어느 중소도시의 중심상권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길은 면적 390km², 인구 30만명정도 되는 도시이다.

연길에서 구수한 배추국으로 아침을 먹고, 민둥산에 옥수수과 콩작물을 심어놓은 경사지를 보면서 잘 다듬어진 아스팔트를 달리다보니, 일송정과 혜란강을 건너 용정으로 들어섰다.

용정은 윤동주 시인의 시심-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세워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를 닮았던 대성중학교(현 용정제일중학교)가 있는 곳이다.

윤동주 기념관에서 윤동주 시인의 모습과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사항을 볼 수 있었다.

안수길의 "북간도", 박계주의 "순애보", 박경리의 "토지"의 무대가 이곳임을 음미하면서 장학금 봉투에 마음을 담아서 접수시키고 밖으로 나오니, 운동장에서는 방학을 맞이하여 중·고등학교 체육선생님들의 교련연수라 하여 훈련이 열심이었다.

용정에서 도문으로 이동하여 도문대교 밑으로 흐르는 두만강 흙탕물에서 뗏목을 타고, 함경북도 남양시 물 언덕에 피어난 꽃들을 만지면서 언제 자유롭게 북한에 갈 수 있을가를 생각해 본다.

경기 불교



중국어, 영어 회화 수강생 모집

- 생활 중국어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생활 영어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기 간 : 3개월 과정
- 수강료 : 중국어 (60,000원), 영어 (60,000원)

금강경 강좌안내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내용 : 금강경 • 기간 : 4개월 과정
- 수강료 : 120,000원
- 강사 : 가섭스님



사찰답사

기도하며 배우는 사찰환경답사 - 태고사와 개태사를 다녀와서 -

한각 최주식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11월 20일의 가을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그 좋은 날, 부처님의 인연으로 경기불교문화원 가족들과 함께 대둔산 태고사와 천호산 개태사 그리고 강경지역 문화답사에 동참하였습니다.

답사 중 생명력 넘치는 나무와 바람과 낙엽을 만나고, 자연 속에 조영된 우리 문화유산을 만나는 일은 행복입니다.

사찰은 정진하시는 스님들에게는 치열한 구도의 현상이지만 우리네에게는 마음이 맑아지는 편안한 곳이어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자신과 대화하고 기도할 여유를 줍니다.

대둔산 낙조대 아래 태고사 가는 길은 꼬불꼬불 가파른 산길이지만 산책하듯 느긋하게 걸어 올랐습니다.

세상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아담하고 조용한 태고사는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였으나 6,25전쟁 중 불 타 1976년 복원되었으며, 경치가 아름다워 지친 삶을 충전하기에 적절한 도량입니다.

아직도 젊은 95세의 도천 주지스님께서도 일념으로 기도해 마음을 비우면 부처님과 통해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상과 집착과 성냄을 버리면 지혜와 자비가 가을 하늘처럼 맑게 떠올라 행복해 질 것입니다. 이어서 수행도량보다는 호국도량에 더 큰 무게가 실리는 개태사에 도착해 눈앞에 펼쳐진 황산벌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황산벌의 가을은 저만치 가 있습니다.

천호산 아래 보리밭에 둘러싸인 개태사는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후백제를 평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고려 태조 19년(936년)에 창건한 사찰로서 경내에는 미륵삼존불상(보물 제219호)과 5층 석탑, 철화, 창운각, 우주각 등의 유적이 있습니다.

개태사 주지스님께서도 부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道理)를 깨닫고 가르치셨다며, 경기불교문화원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바로 아는 도리를 알아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라는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태고사와 개태사를 거쳐 강경포구 일대를 답사 했습니다. 옛 부둣가인 강경포구 일대

에는 대규모 젓갈백화점들이 자리해 있으며, 새우젓, 황석어젓, 멸치젓 등은 감칠맛이 좋아 밥반찬이나 김치의 원료로 인기가 높는데, 경기불교문화원 여러분들은 다양한 젓갈을 구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850여개의 전통사찰이 법등을 밝히고 있으며, 국보와 보물 1500여점 중 약 900여점이 불교문화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사찰을 관광지 정도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매월 우리 역사와 문화속에 깊이 자리하여 정신문화창달에 커다란 기여를 해 온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찾아 함께 배우고 귀 기울여 탐구하고 있으니 이는 큰 원력의 불사(佛事)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기불교문화원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선지식 초청 법회와 불교적 사회성이 가득한 문화 존중의 알찬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우리 조상의 민족정신과 어우러진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부처님전에 합장 발원합니다.

경기불교

11월달 후원회비 내주신분들(11월1일~12월1일)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진철희, 강재수, 공석남, 구광국, 권중서, 김기현, 김말수, 김명옥, 김미월, 김수은, 김순옥, 김영동, 김영희, 김용필, 김은주, 김준옥, 김준호, 김혜자, 두금덕, 민준홍, 박경아, 박상우, 박선현, 박영희, 박정자, 박청용, 배민한, 배정희, 서상렬, 서의호, 손웅식, 송경주, 송호윤, 심학식, 안영찬, 양정례, 양재홍, 양준영, 어윤식, 오선옥, 윤광숙, 윤영무, 이기순, 이난호, 이남덕, 이대곤, 이병일, 이사현, 이상남, 이상범, 이선우, 이수교, 이영옥, 이윤철, 이임성, 이태갑, 이태순, 장명순, 장영남, 장옥훈, 장용집, 정경화, 정무근, 정현숙, 조권형, 조남중, 조명숙, 조성남, 조창윤, 주인수, 진상범, 진주범, 차용희, 최명길, 최숙련, 최정자, 한영규, 한혜승, 함대식

기초교리 수강생 모집

- 개강일 : 12월 14일 개강 (매주 수요일 7시)
- 내 용 : 불교기초교리, 사찰의 구조등
- 기간 : 3개월
- 수강료 : 50,000원
- 강사 : 포교사 및 전문법사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 212-0033
HP 018-313-3838



● 백인에게 듣는다(서른두 번째)



불기2549(2005)년 11월 19일(토)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선재스님의 “음식이 성품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열린 법회가 있었습니다.

● 11월 사찰답사

11월 사찰답사는 태고사, 개태사, 강경포구였습니다. 금산 태고사와 논산 개태사에서의 스님 법문은 사찰답사반에게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경에서는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강경포구의 경치에 빠져들 수 있었고, 젓갈시장에서 강경 특유의 젓갈을 맛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교육 강좌

-12월 하반기 강좌

필라테스 및 요가강좌가 12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수업을 하오니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기초교리와 다도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7시(다도기초반) 오후 7시(기초교리)에 수업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명리학(고급)강좌가 12월 1일 수료식을 갖습니다.

12월부터 3기 명리학(고급)반 강좌가 개강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행사안내

터키, 그리스, 이집트 배낭여행



- 다 음 -

행사명 : 지중해 3국
일 시 : 2006년 1월 31일~2월 21일(21박 22일)
일 정 : 인천공항-터키-그리스-이집트-인천공항
동참금 : 2,590,000원정도(1인)
계약금 : 300,000원

마 감 : 2005.12.31(15명이내)

문 의 : 강경립 간사 TEL. 251-1083

● 교계소식



▶ 중국법문사 불지사리 친견법회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친견대법회가 22일 오후2시 서울 올림픽 제2경기장 특설법당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18일 “22일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불지사리 친견법회를 봉행 한다”면서 “나라의 화합과 민족의 통일을 기원할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양국의 우호증진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佛法맞게 병고없애는 연구가능

총무원장 지관스님, 황 교수 연구 지지 입장 표명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오늘(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에서 “병고(病苦)를 없애기 위해

서 남을 해치거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부처님 법에 따라 연구하는 것은 괜찮다”며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 경북 상주시 나말여초 제작된 마애불 발견

경북 상주시에서 통일신라시대 후기에서 고려시대 초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상이 발견됐다.

이 불상은 높이 6.5m, 너비 2.5m의 동향 바위면에 몸길이 6.3m, 어깨너비 2.4m로 새겨져 있는 상주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마애불이다. 이 마애불의 수인 형태가 훼손이 심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왼손과 오른손이 가슴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 설법인(說法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있다. 이는 마애불 유행하던 시기인 신라말기와 고려초기의 양식으로 도곡리 마애불도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초기 사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수원불교연합회장 이·취임

수원시 불교연합회는 2005년 11월 29일 제8대 회장으로 화남정사 대연스님이 취임하였으며, 제7대 회장으로는 용화정사 조성관 스님이 역임하셨습니다

2005년도 동안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2005년 12월~2006년 2월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2/14 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
	경전강좌	가섭스님	30명	16주 120,000원	금강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 화 강 좌	요 가	문명순	20명	3개월 90,000원 (120,000)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임산부요가(주2회)	매주 화/금요일 오후 3시30분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2/14 개강
	필라테스및 요가	이문섭	20명	3개월 90,000원	필라테스(주2회)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30분	12/6 개강
	명리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5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고급)	12/8 개강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초급)	12/8 개강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주부반/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무진장스님	100명	무료	오늘을 사는 지혜	12월 17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수덕사, 고건축박물관, 추사고택, 전장암	12월 11일 오전 7시 30분 출발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